

‘엄마 공사’ 기보배 ‘金과녁 명중’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 70m 346점 썩1위 최민선 30m ‘銀’...이승윤과 팀이론 혼성단체전 ‘銅’

‘엄마 공사’ 기보배(광주시청)가 올림픽제패기년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기보배는 지난 22일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퀘리파케이션 70m 경기에서 346점을 썩 1위를 차지했다. 국가대표 최미선(순천시청)은 343점으로 김수린(현대모비스)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 30m 경기에서는 최민선(광주시청)이 2위에 자리했다. 357점을 썩 최민선은 전현영(인천시청·358점)에 이어 위나연(LH), 신정화(대전시체육회), 강재영(현대모비스), 안세진(경주시청), 정다소미(현대백화점), 박재희(홍성군청), 김수린(현대모비스)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 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0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50m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건 기보배와 최민선은 이번 대회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오는 10월 열린 전국체전 메달 획득에 청신호를 켜었다.

23일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

전에서는 이승윤(남구청)·최민선(광주시청)이 팀을 이룬 광주가 동메달을 수확했다.

광주는 16강전에서 경복을 세트스코어 6대0으로 꺾고 8강에 올라 제주를 5대1로 제압했다.

이어 열린 준결승전은 치열한 접전으로 펼쳐졌다.

1엔드를 39-36으로 이긴 광주가 2점을 먼저 따냈다. 2엔드 39-39, 세트스코어 3대1로 앞서나간 광주는 3엔드에서 38-39로 패하며 3대3 동점을 내줬다. 마지막 4엔드에서 울산이 40점 만점을 썩고 광주가 39점을 썩 세트 스코어 3대5,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2022 태극마크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복귀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마지막 기량점검에 나선다.

24일에는 일반부 개인·단체전 결승전이 치러지며 25일부터 사흘간 대학부 경기가 이어진다.

24일 일반부 결승전과 27일 대학부 결승전은 SPOTV에서 중계된다.

23일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단체



지난 22일 열린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낸 기보배(왼쪽)와 최민선.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펼쳐 상금 6억7천만원...PGA 투어 시즌 최종전 내일 개막



임성재/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경훈/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성재·이경훈 ‘錢의 전쟁’ 출격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1-2022 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이 25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PGA 투어 2021-2022 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로 여느 대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22일 끝난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까지 선수들의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 있으며 이들은 페덱스컵 순위와 따른 보너스 타수를 안고 대회를 시작한다.

페덱스컵 순위 1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스코티 셰플러는 10년터파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고, 2위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는 8년터파에서 대회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3위 윌 젤러토리스가 7년터파, 4위 쟈니 쇼플리는 6년터파, 5위 샘 번스(이상 미국)는 5년터파 보너스를 받았다.

이후로는 6-10위가 4년터파, 11-15위 3년터파, 16-20위 2년터파, 21-25위 1년터파를 안고 대회를 시작한다. 26위부터 30위까지는 보너스 타수가 없다.

2007년 창설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는 2019년부터 투어 챔피언십에 보너스 타수 제도를 도입했다.

보너스 타수 제도를 도입하면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대회 우승자가 곧바로 해당 시즌 페덱스컵 챔피언이 되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온전히 시즌 챔피언에게 집중될 수 있다.

페덱스컵 챔피언에게는 보너스 1천800만 달러(약 241억원)를 주고, 최하위인 30위에게도 상금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를 주는 ‘돈 잔치’가 펼쳐진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24)가 4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현재 순위는 10위로 4년터파를 안고 대회를 시작한다. 또 이경훈(31)은 26위로 생애 첫 투어 챔피언십 진출의 꿈을 이뤘다.

지난해 페덱스컵 챔피언이었던 캔틀레이가 올해도 1위에 오르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우승자가 된다.

2007년 창설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2회 우승한 선수는 2007년과 2009년의 타이거 우즈(미국)와 2016년과 2019년의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2명이 전부다.

이번 시즌 페덱스컵 순위 7위 매길로이가 역전 우승할 경우 사상 최초의 3회 우승자가 된다. 페덱스컵 1위를 달리는 셰플러가 우승하면 2015년 조던 스피스(미국) 이후 7년 만에 정규 대회까지 페덱스컵 포인트 1위 선수가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르게 된다.

광주시청 김근수, 소총복사 50m 단체전 ‘銀’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김근수(광주시청)가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근수는 지난 22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R9 혼성 50m 소총 복사 SH2 단체전에서 서훈태·김주현과 팀을 이뤄 은메달을 수확했다.

동메달을 추가했다. 금메달은 247.8점을 기록한 서훈태가 차지했다.

지난 19일 R4 10m 공기소총 혼성 SH2 단체전과 20일 R5 10m 공기소총 혼성 SH2 단체전에서 서훈태·김주현과 호

흡을 맞춰 금메달을 2개를 수확한 김근수는 이번 대회 메달 수를 4개로 늘렸다.

한편, 연일 메달 행진을 펼치고 있는 한국선수단은 22일 현재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동메달 8개로 2위 프랑스(금 6·은 5), 3위 인도(금 1·은 2·동 3)를 따돌리고 대회 종합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박희중기자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코로나19로 파행

2018년 중국 난징 대회 이후 4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린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행을 겪고 있다.

23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복식에 출전한 서승재(25)·최승규(27)는 64강전과 32강전 상대가 대회를 기권하면서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16강에 진출했다.

상대 선수들이 기권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회 주최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회는 남녀 단·복식, 혼합 복식 등 5개 종목이 64강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상당수 선수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부전승 경기가 속출하고 있다.

남자 복식의 경우 47개 팀만 출전하면서 64강전 32경기 중 단 15경기만 치러질 예정이고, 나머지 17팀은 부전승으로 32강에 올랐다.

게다가 서승재·최승규는 32강 상대마저 대회 도중 기권하면서 16강까지 패승 진출했다.

다른 종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자단식의 경우도 64강전에 47명의 선수만 출전해 32경기 중 단 15경기만 치러졌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인 안세영(20)은 상대 선수가 없어 부전승으로 32강에 진출했고, 심유진(23)도 상대인 싱가포르의 여자만이 기권하면서 64강전을 치르지 않고 32강에 올랐다.

여자복식과 혼합복식도 상당수 팀이 출전을 포기하면서 각각 64강전 32경기 중 13경기만 치러질 예정이다.

그나마 남자단식의 경우 62명의 선수가 출전해 64강전 중 경기 중 2경기만 파행되는 데 그쳤다.

64강전 경기가 대폭 축소되면서 경기 일정도 상당 부분 변경됐다.

당초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치러려던 64강전 경기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32강전 경기가 23일로 당겨져 치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골때리는 그녀들’에 이어 ‘언니들이 쏜다’



최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진행된 ‘언니랑 쏬래?’ 제작 모습. <KBS 제공>

양궁에 진심인 언니들의 도전과 성장기

KBS, 본격 양궁 버라이어티 ‘언니랑 쏬래?’ 31일 첫 방송 글로벌스타 기보배, 최미선, 안산, 김제덕 특급 비법 전수



4년 만에 돌아오는 올림픽에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는 양궁이다.

올 국민의 응원 속에 어김없이 금빛 과녁을 쏘아 올리는 대한한국 양궁은 40여 년 동안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내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은 올림픽 단체전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0도쿄올림픽까지 올림픽 9연패라는 대기록을 거두며 세계 양궁계에 금빛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자 양궁 명가 광주가 있다.

대한민국 양궁 1호 금메달리스트이자 최초의 여자 금메달리스트인

치진으로 참여한다.

연예인 장단 멤버로는 전 여자체조 국가대표이자 스포티네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수지와 발랄한 매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인 일본 출신 방송인 모에카가 합류해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해 줄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사전 제작 중인 ‘언니랑 쏬래?’는 전국 단위의 양궁단 선발전을 시작으로 집중 훈련, 단체·개인 미션, 평가전 등을 거쳐 오는 10월1일에 개최되는 ‘제1회 광주시 남구청장배 전국생활체육양궁대회’ 출전까지 6개월간의 대장정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양궁단의 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특수훈련이 진행되는데 글로벌 올림픽 스타인 최미선·안산·김제덕이 일일 코치진으로 합류해 특별한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언니랑 쏬래?’는 오는 31일 밤 7시40분, KBS1채널(광주·전남)에서 첫 방송된다. /박희중기자

프로야구 2연전 폐지

내년부터 격년제로 홈 73·방문 71→방문 73·홈 71 편성

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연전을 폐지하기로 했다.

KBO는 23일 “2015시즌부터 올해까지 운영한 기존 3라운드 홈 2연전-방문 2연전을 올 시즌을 끝으로 폐지한다”며 “대신 내년부터 3라운드를 홈 3연전-방문 1경기로 5개 팀씩 격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는 ‘10개 구단·팀당 144경기 체제’가 자리 잡은 2015년부터 시즌 후반 ‘2연전’을 편성했다.

한 구단이 9개 팀과 16차례씩 맞대결하는 구조에서 홈과 방문 경기를 8경기씩 나누려면 ‘4차례의 3연전과 2번의 2연전’을 편성하는 게 가장 무난해 보였다. 하지만 2연전 일정을 소화하며 자수침을 풀고 싸야 하는 현장에서 ‘개신’을 요청했다.

KBO는 경기 편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각 구단 마케팅과 논의를 이어

갔고, 실행위원회 의결과 이사회 심의를 통해 ‘2연전 폐지’를 확정했다.

2023시즌부터는 A와 B팀이 3연전을 5차례 치르고, 1경기를 추가로 벌여 16차례 맞대결한다. 2023시즌에 B팀과 홈 3연전 3번·방문 3연전 2번을 치르는 A팀은, 2024시즌에는 홈 3연전 2번·방문 3연전 3번을 치른다.

KBO는 “선수단의 체력 부담과 이에 따른 부상 위험을 줄여 경기력을 향상해 팬들에게 더 빠진 경기 넘치고 흥미로운 경기를 선보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경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개 구단 전체 홈·방문 경기 수 또한 격년제로 홈 73경기·방문 71경기 또는 방문 73경기·홈 71경기로 바뀐다. 이 중 홈과 방문 등 최소화하는 일정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잔여 1경기는 재편성되는 우천 취소 경기와 연동해 편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파크골프연맹, 제1기 2급 지도자 교육생 모집

9월16일까지 50명 선착순 접수

(사)대한파크골프연맹 광주광역시연맹(이하 광주시파크골프연맹)은 남녀노소 3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의

자변화대를 위해 제1기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증 양성과정 교육생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해 함께 할 수 있는 100세 시대를 위한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도자는 파크골프클럽이나 노인 및 실버대학,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등을 비롯해 각 직능단체 파크골프교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와 전국대회 경기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박희중기자